

오박사 가정(五博士 家庭)

전 인천교대총장 정동화(鄭東華) 박사댁 이야기



인천 교육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재경포천시 민회 명예회장이며 한국 의식개혁회 의회장인 정동화 박사(사진) 댁 가족의 경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정동화 박사(57세)는 2006년 미합중국 인디애나 사범대학교(교육학전공)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둘째 영애(永愛)인 정미혜 박사는 고향 명문 대전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셋째 영애 정미진 박사는 중앙대, 성균관대, 숭의여대 강사로 출강하고 있는가 하면, 넷째 영애 정미현 박사는 미국 MOERCY 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 부교수로 교육학 강의를 하고 있다.

이외 정동화 총장(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과 제씨 정동환 박사(원광대 약학박사, 성균관대 강사)와 함께 다섯 박사 가정이라고 명성이 높다.

김창종 수필가 · 본지 자문위원회 고문



1만여명은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가정 등 포천시 인구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오는 10월7일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제1회 포천시 다문화축제를 개최한다.

外國人 노동자 포천어울마당

2007 제1회 포천시 多文化 축제 10월7일

1만여명은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가정 등 포천시 인구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오는 10월7일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제1회 포천시 다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이주노동자들과 국제결혼가정 등 많은 이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해 있지만 많은 문화적 갈등과 차별을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서로 부족한 가운데 발생하는 불신과 반목을 포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마련된다.

주요프로그램은 들어섬, 어울림, 하나됨, 부대행사로 나눠 실시하며 들어섬에서는 축제에 참가하는 이들이 입구에서 사인으로 자신을 소개, 행사가 참가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여권을 발급해 지구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시아 전통예능을 열고, 순도장 찌기, 페이스페인팅, 아트폰선 등으로 축제분위기를 띄우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 인식개선 서명운동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불임말을'이라는 다문화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어울림 마당에서는 각각의 전시물과 전통의상, 놀이 등 문화를 소개하는 포천지구마을, 한국과 포천에 거주하는 이주민 국가의 음식을 한 자리에서 즐기는 정다운 지구촌 음식장터, 이주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품으로 부딪히는 다양한 간이문화놀이를 즐기는 미니올림픽, 지구촌 친화장사, 새싹놀이, 이주노동자 영화제·사진전 등이 개최된다. 하나됨 마당에서는 국가별로 전통춤, 한국노래 등을 뽐내는 정기자랑과 이주노동자밴드 및 사물패가 이끄는 대동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 외국인노동자 등 이주민들의 인권과 생활편의를 위한 한 가지 관련 단체 홍보와 생활서비스를 실시하고 각각의 기본 인사말을 작은 색지 종이에 그 단어의 뜻을 풀어쓰는 '이웃돕기' 행사를 소개, 행사에 참가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여권을 발급해 지구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시아 전통예능을 열고, 순도장 찌기, 페이스페인팅, 아트폰선 등으로 축제분위기를 띄우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 인식개선 서명운동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불임말을'이라는 다문화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훈훈한 추석을 위한 이웃돕기 전개

공무원 솔선수범 유관단체 참여 유도

포천시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더 볼여 정을 나누는 훈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위문계획을 수립·전개한다. 우선, 시에서는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용품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포천시가 함께하는 마음을 전한다.

또한, 2005년부터 시작된 '공무원 1인 1가정 방문하기'를 올해도 추진하여, 수급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각 실·과·소 및 읍·면·동이 주체가 되어 위문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서 배분된 농협상품권을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 단체 및 개인이 기탁한 쌀, 계란 등 물품을 결식아동 등에게 배분하여 서비스의 사각지대 없이 포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한다.

한편, 시는 관내 100여 유관기관에게 공문을 보내 추석명절 이웃돕기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규임 민국영양사협회장

어른은 민초(民草)들의 소리이다 (甲木)인 큰 나무는 부러지지 않듯 고개를 숙인 풀 부러지지 않는다. 잡초가 살아가는 방법(方法)이다. 잡초가 살아남는 지혜(智慧)이다. 민초들도 마찬가지로 무지몽매(無知蒙昧)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바람의 향방을 알고 어른의 향방을 안다. '어른'이 곧 그들의 마음이다, 바람이기 때문이다.

어른은 또한 형체(形體)가 없다. 금력이나 권력도 그것을 부수할 방법이 없다. 아무도 그 흐름을 막을 방법이 없다. 독재사회나 민주사회를 막론하고 어른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어른이 '형체'가 없기 때문이다. 어른의 지지(支持)가 필요한 사람은 이 같은 사실을 반듯이 명심(銘心)해야 한다. 예전 사람들은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고 말했다.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뜻이다. 하늘의 뜻을 무시하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어른은 민초(民草)들의 소리이다. 백성(百姓)들의 소리이다. 민초란 풀목(草木)을 말하는 것이다. '풀목'이란 큰 나무 밑에 자라는 잡초(雜草)를 말하는 것이다. 잡초는 바람의 향방(方向)을 먼저 안다. 바람이 일기 전에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멈추기 전에 고개를 든다. 태풍이 불 때 갑박

자유기고

오늘은 친정아버님의 추도일이다. 아침부터 고향에서 살고있는 언니의 목소리가 전화벨을 울렸다. "뭇오지?" 당연히 알면서도 집을 나서면서 전화했나 보다. 마음이야 당장 친정집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내 처지를 어찌하랴!

내가 중학교 2학년때 돌아 가셨으니...내 나이가 오십이 됐으니 벌써 몇 십년의 세월인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는데 큰오빠 친구였던 담임선생님께서 전해준 아버지 소식을 듣고 십리 길을 단숨에 달려갔다.

세분의 고모님이 계셨으나 이들은 혼자였던 아버지는 팔 남매를 두셨고 팔 남매 중 4명의 오빠를 모두 대학교를 보았으며 밀로로 팔 3명과 막내아들도 모두 대학을 보내라는 유언을 남기실 정도로 교육열도 대단하셨다.

일찍이 초대 편의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했고 돌아가실

친정아버지

때까지도 지역 학교 육성회장을 하면서 학교 일에도 열심이었다. 그래서 장례를 학교장으로 치렀다.

어린 나이에 난 속으로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감사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내 주변 친구 아버지는 작은 마누라를 얻어 살림하면서 자식들을 낳았고 친구들이 불편한 한 것을 보면서 소위 바깥출입을 하셨던 아버지는 너무나 깨끗한 도덕관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도 단 한번도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신 적이 없었다.

엄격한 성품이면서도 또한 끔찍히 사랑해 주시기도 했다. 속정이 깊으셔서 길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으나 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했고 공부를 잘 했다고 등을 토닥거리 주실 때도 많았다.

제주도에 출장 다녀오면서 사오려던 빨간 윤문화그런데 그 속에서 나왔던 풍선 한 개-지급도 그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생일날이 되면 그 자식은 아버지와 곁잡을 해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내 생일날! 아버지와 곁잡을 해서 밥을 먹었는데 생선가시를 다 발라서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셨다.

그때 어린 생각으로 '난 커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결혼할거야' 라고 맘먹기도 했었다. 훗날 내가 결혼해서 아이들과 밥상에 앉았는데 아버지는 그리하지 않는걸 보고(아버지를 생각하며) 남편한테 잔소리했던 게 기억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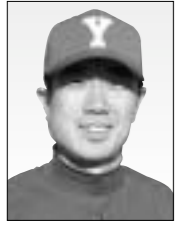
오늘 밤에도 우리 가족들은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그때의 아버지를 그리워하겠지? 연호하신 친정 언니도 남편이 아련히 그리워질꺼야...오늘밤엔.....



강기숙 주부영양사협회장

인터뷰

"세희망과 화합의 경기도야구연합회 만들겠다"



장승호 수원 경기야구연맹회장

"어깨가 무겁다. 저 혼자만 이끌어 나갈 수는 없다. 각 시군 연합회장의 도움이 필요하다. 경기도야구연합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9월14일 신입 경기도야구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장승호(37·사진) 포천시야구연합회회장의 당선 소감이다.

장 회장은 2004년12월6일 포천시야구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해 포천시리틀야구단 육성은 물론 사회인 야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다가 이번 경기도야구연합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장 회장은 "그동안 경기도야구연합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활성화

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특히 회원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야구를 즐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KBS배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사회인 야구연합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장 회장은 경기도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연합회장들의 결속을 다지고 세희망과 화합의 경기도 야구의 위상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 회장은 "우리 경기도야구연합회의 발전과 미래는 여러 회장님의 도움과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따뜻한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 회원단체로 가입도 하여 주시고 적극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여 많은 이야기와 정적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가을맞이 솔모루문학회 모임

10월4일 오후7시 신수원가든에서

솔모루문학회(회장 장현곤)는 오는 10월4일 오후7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신수원가든에서 가을맞이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날 모임은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박정근 교수의 문학특강과 희망 회원들의 시낭송,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솔모루 문학회(회장 011-9866-3422, 사무국장 011-9262-89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월빙

부사의(不思意)

어른(輿論) 30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俗談)이 있다. 이 속담은 두 가지 의미(意味)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소문이 아주 빠르게 퍼진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나 빨라서 도저히 되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예전에도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일단 소문이 나면 쓸어 담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중구연금(衆口鍊金)이란 말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어른 사람의 입'이란 시냇물로 어른(輿論)을 말하는 것이다.

어른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빠르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쏠려버려 변하지 않는다. 한번 각인된 어른은 쏠려버려 지워지지 않는다. 뿌리를 내리고 번져나가기 때문이다. 그 뿌리는 잡초(雜草)와 같이 어찌지 못한다. 돌아서면 자리나는

어른은 민초(民草)들의 소리이다

것이 잡초이기 때문이다. 무성하기 전에 뽑아주는 수밖에 없다. 아니 그 뿌리가 되는 원인(原因)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방법도 어른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속담을 되새겨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어른은 또한 형체(形體)가 없다. 금력이나 권력도 그것을 부수할 방법이 없다. 아무도 그 흐름을 막을 방법이 없다. 독재사회나 민주사회를 막론하고 어른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어른이 '형체'가 없기 때문이다. 어른의 지지(支持)가 필요한 사람은 이 같은 사실을 반듯이 명심(銘心)해야 한다. 예전 사람들은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고 말했다.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뜻이다. 하늘의 뜻을 무시하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어른은 민초(民草)들의 소리이다. 백성(百姓)들의 소리이다. 민초란 풀목(草木)을 말하는 것이다. '풀목'이란 큰 나무 밑에 자라는 잡초(雜草)를 말하는 것이다. 잡초는 바람의 향방(方向)을 먼저 안다. 바람이 일기 전에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멈추기 전에 고개를 든다. 태풍이 불 때 갑박

을 말하는 것이며 선택적 경향이란 일반적으로 정보에 노출되지만 그것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의견지도자를 따르는 경향(傾向)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정치, 정치를 지망(志望)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중의 속성(屬性)을 잘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여론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한다. 그래서 안 된다. 여론의 실제(實態)와 속성(屬性)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여론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다.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조작(造作)될 수 있는 것이다. 매니플레이션(manipulate)할 수 있는 것이다. 조작한다는 말이다. 요즘 흔히 말하는 여론조작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여론조사는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의도한 대로 조작할 수 있다. 이것이 여론조사가 지니고 있는 합정이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사실(事實)을 잘 알고 판단(判斷)을 잘 해야 한다.

자유기고

우리 자랄 때는 그렇게 다 소중했고 귀하기만 하던 학용품들은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져서 다 갈모양만 예쁘게 포장되고 한번 사용하면 망가지는 것이 다반사이고 휴지조각 버려지듯이 나뒹굴어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는 한다.

예쁜 가방, 신발주머니, 샤프, 공책 등은 물론이고 값비싼 장난감마저도 유명브랜드 옷, 이모든 물품들은 일회용처럼 사용하고 버려지는 것도 환경오염이 된다.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낭비이기도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써 준다면 환경오염을 막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지난날 우리가 자랄 때는 연필이나 닳으면 갈로 깎으면서도 연필심이 부러질까봐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다 쓰고 남은 붓양연필은 오뎅탕만 손때가 묻어 반질 해졌지만 종이 들고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빈 봉투에 끼어 쓰고는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예쁘고 새로운 샤프들이 연필을 대체해서 다양한

환경 사랑

로 만들어져서 골고루 마음껏 구입하고 사용하지만 쉽게 아무 데나 버려지고 나뒹굴기만 한다. 내가 사용하던 물건을 버릴 때는 마음 아파하는 감정보다도 새것을 구입할 수 있다는 기쁨에 차 있는 아이들에게 버려진 물건에 소중함을 깨우쳐 주고, 버려진 물건들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도 삼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분리수거에 요령을 알고 폐품재활용을 하는 습관을 키워준다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작은것들이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다면 좋을 듯 싶다. 우리가 늘 신고 다니는 유명브랜드 운동화 구두들도 떨어져서 못 신는 것이 아니라 땀이 나서 안 신고 막무가내로 버려진다.

이렇게 내 것이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누구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깨끗이 손질해서 깨끗한 비닐 봉지에 잘 담아 모아서 버린다면 어떤 다른 필요로 한 사람이 가져다 아깝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잘 신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해 쓰레기양도 줄여

지며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도 환경오염 시키는데 한 몫을 하는 듯 싶다. 쓰레기봉투가 너무 얇아 만들어져서 쓰레기를 담아 내 놓으면 금방 터져 버려서 지저분한 오물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어 다니는 것조차도 환경오염의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 한 사람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사랑하는 마음이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몫이다.

꼭 눈으로 보이는 곳에 꽃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고 해야 만이 환경사랑은 아닌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환경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 나라 깨끗한 나라,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환경사랑하는 마음이 내 생명 중 중요한 만큼이나 우리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람으로 글로서 몇자 실어본다.



이종실 주부영양사협회장

포천시 인사발령 단행

승진과 전보발령 137명에 대해

포천시는 11일 정병화 자치행정과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 승진·임용하는 등 137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발령을 단행했다. 12일부로 승진 및 전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4급 서기관
이규환 건설도시국장→의회사무국장, 이광세 의회사무국장→건설도시국장, 정병화 자치행정과장→주민생활지원국장(서기관 승진)

▶5급 사무관
윤석희 공보관광담당관→소홀읍장, 안유진 기업지원과장→공보관광담당관, 이영재 소홀읍장→자치행정과장, 연재남 신북면장→기업지원과장, 강승봉 화천면장→신북면장

▶6급 주사
김덕진 기획감사담당관실→화천면장(직무대리), 유기문 민원과→기획감사담당관실, 강은숙 회계과→세정과, 김태성 의회사무국→민원과, 이계원 참수면→일동면, 이한란 일동면→신북면, 박현국 포천동→의회사무국, 김영식 세정과→회계과, 이진수 농축산과→산림복지과, 김영길 산림복지과→농축산과, 허용철 신북면→참수면, 김재화 영종면→포천동

▶7급 주사보
윤승재 자치행정과→영종면(담당요원), 송보정 기획감사담당관실→건축과, 김승학 공보관광담당관실→자치행정과, 이춘수 자치행정과→주민생활지원과,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이동면, 정종철 문화체육과→회계과, 정영재 기업지원과→자치행정과, 임석빈 농축산과→화천면, 정명자 도시과→신북면, 차재훈 교통행정과→이동면, 이은구 의회사무국→공보관광담당관실, 이미선 소홀읍→기획감사담당관실, 배경길 이동면→소홀읍, 김지수 화천면→교통행정과, 이인혜 가족여성과→소홀읍, 원미란 내촌면→

사회복지과, 최수진 참수면→선단동, 이용희 공보관광담당관실→포천동, 조병하 민원과→도시과, 김도현 건축과→기획감사담당관실, 최진호 이흥면→공보관광담당관실, 이희정 화천면→건설과, 이계하 포천동→민원과

▶8급 서기
장유근 가족여성과→내촌면, 우명정 민원과→이동면, 전영섭 산림복지과→의회사무국, 여동춘 소홀읍→건축과, 한소연 내촌면→자치행정과, 김수연 내촌면→주민생활지원과, 이형우 신북면→민원과, 홍재영 이동면→사회복지과, 백수민 소홀읍→영북면, 김현욱 일동면→내촌면, 이미수 영북면→가족여성과, 김령현 재난관리과→빈민아트센터사무소

▶9급 서기보
전성후 기획감사담당관실→포천동(승진), 손승호 공보관광담당관실→공보관광담당관실(승진), 윤세현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승진), 이희범 주민생활지원과→소홀읍(승진), 이예인 사회복지과→공보관광담당관실(승진), 이미선 사회복지과→참수면(승진), 정혜선 민원과 민원과(승진), 한정희 건설과→기획감사담당관실(승진), 이정은 재난관리과→재난관리과(승진), 손지은 참수면→사회복지과(승진), 허인혜 이동면 건설과(승진), 장재준 화천면→화천면(승진), 오경호 세정과→세정과(승진), 이혜정 세정과→세정과(승진), 윤석배 신북면→참수면(승진), 김경현 이동면→이동면(승진), 이정현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승진), 김진욱 수도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실(승진), 노희정 산남면→가산면(승진), 정미애 가산면→산림복지과(승진), 은태건 건설과→화천면(승진), 안소연 건설과→이동면(승진), 장시영 건축과→건축과(승진), 이상백 건축과→문화체육과(승진), 장진규 교

통행정과→화천면, 박하나 빈민아트센터사무소→신북면, 양소영 사회복지과→신북면, 정찬수 문화체육과→수도사업소, 유상욱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나상현 수도사업소→건설과

▶9급 서기보(승진)
김경식 사회복지과, 김유미 기업지원과, 윤상태 산림복지과, 박진우 내촌면, 홍정아 일동면, 김봉경 건축과, 김대용 기획감사담당관실(지방전입계약직 "디"급)

▶기능직
김영주 건설과→공보관광담당관실, 박필수 수도사업소→회계과, 강용주 문화체육과→수도사업소, 김용태 수도사업소→문화체육과, 정규용 회계과→농업기술센터, 이연하 보건소→빈민아트센터관리사사무소, 김경희 농업기술센터→회계과, 최경민 빈민아트센터관리사사무소→보건소, 김명희 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 정만규 교통행정과→문화체육과, 한국덕 수도사업소→건설과, 유성식 환경지원과→수도사업소, 최창식 수도사업소→문화체육과, 김경섭 회계과→화천면, 김현철 회계과→선단동, 이용철 회계과→농업기술센터, 설재환 보건소→회계과, 정태구 영종면→영북면, 박우연 영북면→영종면, 김충원 내촌면→가산면, 권영복 가산면→내촌면, 안금호 관민면→영북면, 김유형 포천동→일동면, 이용구 사회복지과→교통행정과, 조용문 회계과→사회복지과, 최찬구 의회사무국→회계과, 이병구 공보관광담당관실→수도사업소, 최원우 수도사업소→회계과, 오창훈 회계과→수도사업소, 변효찬 수도사업소→의회사무국, 오배훈 회계과→의회사무국, 최승필 의회사무국→회계과, 정윤식 선단동→회계과, 이부형 소홀읍→내촌면, 김중순 내촌면→의회사무국, 최승민 신북면→화천면, 박계원 참수면→영종면, 심일선 영종면→참수면, 이병선 일동면→이동면, 김장영 이동면→소홀읍, 김정화 영북면→관민면, 허광현 화천면→신북면, 이상현 화천면→회계과, 남봉진 문화체육과→환경지원과

▶기능직
김영주 건설과→공보관광담당관실, 박필수 수도사업소→회계과, 강용주 문화체육과→수도사업소, 김용태 수도사업소→문화체육과, 정규용 회계과→농업기술센터, 이연하 보건소→빈민아트센터관리사사무소, 김경희 농업기술센터→회계과, 최경민 빈민아트센터관리사사무소→보건소, 김명희 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 정만규 교통행정과→문화체육과, 한국덕 수도사업소→건설과, 유성식 환경지원과→수도사업소, 최창식 수도사업소→문화체육과, 김경섭 회계과→화천면, 김현철 회계과→선단동, 이용철 회계과→농업기술센터, 설재환 보건소→회계과, 정태구 영종면→영북면, 박우연 영북면→영종면, 김충원 내촌면→가산면, 권영복 가산면→내촌면, 안금호 관민면→영북면, 김유형 포천동→일동면, 이용구 사회복지과→교통행정과, 조용문 회계과→사회복지과, 최찬구 의회사무국→회계과, 이병구 공보관광담당관실→수도사업소, 최원우 수도사업소→회계과, 오창훈 회계과→수도사업소, 변효찬 수도사업소→의회사무국, 오배훈 회계과→의회사무국, 최승필 의회사무국→회계과, 정윤식 선단동→회계과, 이부형 소홀읍→내촌면, 김중순 내촌면→의회사무국, 최승민 신북면→화천면, 박계원 참수면→영종면, 심일선 영종면→참수면, 이병선 일동면→이동면, 김장영 이동면→소홀읍, 김정화 영북면→관민면, 허광현 화천면→신북면, 이상현 화천면→회계과, 남봉진 문화체육과→환경지원과

▶기능직
김영주 건설과→공보관광담당관실, 박필수 수도사업소→회계과, 강용주 문화체육과→수도사업소, 김용태 수도사업소→문화체육과, 정규용 회계과→농업기술센터, 이연하 보건소→빈민아트센터관리사사무소, 김경희 농업기술센터→회계과, 최경민 빈민아트센터관리사사무소→보건소, 김명희 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 정만규 교통행정과→문화체육과, 한국덕 수도사업소→건설과, 유성식 환경지원과→수도사업소, 최창식 수도사업소→문화체육과, 김경섭 회계과→화천면, 김현철 회계과→선단동, 이용철 회계과→농업기술센터, 설재환 보건소→회계과, 정태구 영종면→영북면, 박우연 영북면→영종면, 김충원 내촌면→가산면, 권영복 가산면→내촌면, 안금호 관민면→영북면, 김유형 포천동→일동면, 이용구 사회복지과→교통행정과, 조용문 회계과→사회복지과, 최찬구 의회사무국→회계과, 이병구 공보관광담당관실→수도사업소, 최원우 수도사업소→회계과, 오창훈 회계과→수도사업소, 변효찬 수도사업소→의회사무국, 오배훈 회계과→의회사무국, 최승필 의회사무국→회계과, 정윤식 선단동→회계과, 이부형 소홀읍→내촌면, 김중순 내촌면→의회사무국, 최승민 신북면→화천면, 박계원 참수면→영종면, 심일선 영종면→참수면, 이병선 일동면→이동면, 김장영 이동면→소홀읍, 김정화 영북면→관민면, 허광현 화천면→신북면, 이상현 화천면→회계과, 남봉진 문화체육과→환경지원과

▶기능직
김영주 건설과→공보관광담당관실, 박필수 수도사업소→회계과, 강용주 문화체육과→수도사업소, 김용태 수도사업소→문화체육과, 정규용 회계과→농업기술센터, 이연하 보건소→빈민아트센터관리사사무소, 김경희 농업기술센터→회계과, 최경민 빈민아트센터관리사사무소→보건소, 김명희 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 정만규 교통행정과→문화체육과, 한국덕 수도사업소→건설과, 유성식 환경지원과→수도사업소, 최창식 수도사업소→문화체육과, 김경섭 회계과→화천면, 김현철 회계과→선단동, 이용철 회계과→농업기술센터, 설재환 보건소→회계과, 정태구 영종면→영북면, 박우연 영북면→영종면, 김충원 내촌면→가산면, 권영복 가산면→내촌면, 안금호 관민면→영북면, 김유형 포천동→일동면, 이용구 사회복지과→교통행정과, 조용문 회계과→사회복지과, 최찬구 의회사무국→회계과, 이병구 공보관광담당관실→수도사업소, 최원우 수도사업소→회계과, 오창훈 회계과→수도사업소, 변효찬 수도사업소→의회사무국, 오배훈 회계과→의회사무국, 최승필 의회사무국→회계과, 정윤식 선단동→회계과, 이부형 소홀읍→내촌면, 김중순 내촌면→의회사무국, 최승민 신북면→화천면, 박계원 참수면→영종면, 심일선 영종면→참수면, 이병선 일동면→이동면, 김장영 이동면→소홀읍, 김정화 영북면→관민면, 허광현 화천면→신북면, 이상현 화천면→회계과, 남봉진 문화체육과→환경지원과

▶기능직
김영주 건설과→공보관광담당관실, 박필수 수도사업소→회계과, 강용주 문화체육과→수도사업소, 김용태 수도사업소→문화체육과, 정규용 회계과→농업기술센터, 이연하 보건소→빈민아트센터관리사사무소, 김경희 농업기술센터→회계과, 최경민 빈민아트센터관리사사무소→보건소, 김명희 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 정만규 교통행정과→문화체육과, 한국덕 수도사업소→건설과, 유성식 환경지원과→수도사업소, 최창식 수도사업소→문화체육과, 김경섭 회계과→화천면, 김현철 회계과→선단동, 이용철 회계과→농업기술센터, 설재환 보건소→회계과, 정태구 영종면→영북면, 박우연 영북면→영종면, 김충원 내촌면→가산면, 권영복 가산면→내촌면, 안금호 관민면→영북면, 김유형 포천동→일동면, 이용구 사회복지과→교통행정과, 조용문 회계과→사회복지과, 최찬구 의회사무국→회계과, 이병구 공보관광담당관실→수도사업소, 최원우 수도사업소→회계과, 오창훈 회계과→수도사업소, 변효찬 수도사업소→의회사무국, 오배훈 회계과→의회사무국, 최승필 의회사무국→회계과, 정윤식 선단동→회계과, 이부형 소홀읍→내촌면, 김중순 내촌면→의회사무국, 최승민 신북면→화천면, 박계원 참수면→영종면, 심일선 영종면→참수면, 이병선 일동면→이동면, 김장영 이동면→소홀읍, 김정화 영북면→관민면, 허광현 화천면→신북면, 이상현 화천면→회계과, 남봉진 문화체육과→환경지원과

▶기능직
김영주 건설과→공보관광담당관실, 박필수 수도사업소→회계과, 강용주 문화체육과→수도사업소, 김용태 수도사업소→문화체육과, 정규용 회계과→농업기술센터, 이연하 보건소→빈민아트센터관리사사무소, 김경희 농업기술센터→회계과, 최경민 빈민아트센터관리사사무소→보건소, 김명희 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 정만규 교통행정과→문화체육과, 한국덕 수도사업소→건설과, 유성식 환경지원과→수도사업소, 최창식 수도사업소→문화체육과, 김경섭 회계과→화천면, 김현철 회계과→선단동, 이용철 회계과→농업기술센터, 설재환 보건소→회계과, 정태구 영종면→영북면, 박우연 영북면→영종면, 김충원 내촌면→가산면, 권영복 가산면→내촌면, 안금호 관민면→영북면, 김유형 포천동→일동면, 이용구 사회복지과→교통행정과, 조용문 회계과→사회복지과, 최찬구 의회사무국→회계과, 이병구 공보관광담당관실→수도사업소, 최원우 수도사업소→회계과, 오창훈 회계과→수도사업소, 변효찬 수도사업소→의회사무국, 오배훈 회계과→의회사무국, 최승필 의회사무국→회계과, 정윤식 선단동→회계과, 이부형 소홀읍→내촌면, 김중순 내촌면→의회사무국, 최승민 신북면→화천면, 박계원 참수면→영종면, 심일선 영종면→참수면, 이병선 일동면→이동면, 김장영 이동면→소홀읍, 김정화 영북면→관민면, 허광현 화천면→신북면, 이상현 화천면→회계과, 남봉진 문화체육과→환경지원과

▶기능직
김영주 건설과→공보관광담당관실, 박필수 수도사업소→회계과, 강용주 문화체육과→수도사업소, 김용태 수도사업소→문화체육과, 정규용 회계과→농업기술센터, 이연하 보건소→빈민아트센터관리사사무소, 김경희 농업기술센터→회계과, 최경민 빈민아트센터관리사사무소→보건소, 김명희 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 정만규 교통